

한국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원가족 요인이 불안올 매개로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Family of Origin Factors on the Romantic Relationship
through Anxiety Among the Unmarried Men of Early Adulthood in Korea*

신라대학교 사회복지·가족학부 가족학과
조교수 전 영 주

Dept. of Family Studies, Silla Univ.
Assistant Prof. : Chun, Young-Ju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eady date and the influences of family of origin factors and anxiety on the romantic relationship among the unmarried men of early adulthood. Ninety men dating for more than 2 months responded the questionnaire regarding differentiation of family of origin, parents' marital intimacy, trait anxiety, couple intimacy, couple individuation, and the demographic questions. Using SPSS Win 10.0, ANOVA and regression were conducted. The results found that: 1) 'methods of introduction,' 'frequency of dating per week' and 'military dut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uple intimacy; 2) the men's age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couple intimacy and positively related to the couple individuation; 3) differentiation of family of origin affected men's anxiety which in turn affected the couple intimacy. In conclusion, summary and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성인초기 남성(early adulthood men), 원가족(family of origin), 불안(anxiety), 낭만적 관계(romantic relationship)

Corresponding Author: Chun, Young-Ju, Dept. of Family Studies, Silla University, Gaepub-dong, Sasang-gu, Busan, 617-736, Korea
Tel: 82-51-309-5691 Fax: 82-51-309-5177 E-mail: yjchun@silla.ac.kr

* 본 연구는 2001학년도 신라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수행되었음.

I. 서론

지난 십여년간 배우자 양식의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랑이 매우 중요한 배우자 선택 요건으로 등장한 것이다. 가족형성과정에서 진행되는 이와 같은 변화를 일컬어 '낭만적 혁명' 또는 '친밀감의 혁명'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사랑을 보다 중요한 결혼조건으로 보고하고 있다(김경신, 김오남, 윤상희, 1997; 함인희, 2001). 이는 불과 십여년 전의 조사(이동원 외, 1991)에서 '애정'이 배우자 선택조건 항목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와서 규범적 나이를 덜 의식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생애를 통해 낭만적 관계의 돌입이나 배우자선택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전통적인 발달이론에서는 '친밀감과 애정'은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대표적인 사회심리학자인 Erikson(1950, 1982)은 성인발달의 세 단계(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중 첫 번째 단계인 성년기의 발달과업을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고 규정하였고, Levinson은 그의 단계이론에서 성년기로의 진입과 과도기인 22-33세의 시기에는 결혼과 가족을 포함하는 첫 번째 인생구조를 설계하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도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발달과업이라고 하였다(정육분, 2000).

낭만적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입장은 남녀의 친밀감의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여, 단순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은밀하게 사회적 규칙과 결합되어 있음을 주장한다(최연실, 1999). 낭만적 관계는 결혼당사자나 부모의 사회적 배경, 재산, 학력, 종교, 등에 영향을 받으며(김경신 외, 1997; 함인희, 2001), 또한 개인의 맥락적 변인인 연령이나 성별, 만남의 횟수와 교제기간도 연인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친다(권석만, 1997).

한편 성역할체계에 따라 분화된 낭만적 관계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적절한 독립성이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킴에도 불구하고, 의존과

애착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권석만, 1997; 최연실, 1999). 커플간의 적절한 자율감 또는 독립감은 건강한 사랑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며, 최근 성역할체계가 통합되어가는 사회적 추세와 함께 사랑과 친밀감에 치중된 '여성화된 사랑' 이데올로기가 쇠퇴하고 자기개발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양성화된 사랑'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가족발달이론 및 다세대 가족체계론 접근에서는 성인초기의 낭만적 관계가 개인발달적,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원가족 요인에 의한 세대전수적인 영향을 받는데 주목하고 있다. 한 세대의 커플관계가 그 다음 세대의 커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Rossi & Rossi, 1990)와, 원가족의 기능성의 수준이 다음 세대의 커플관계와 관련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남성이 여성보다 원가족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김현정, 김명자, 1999; 전영주 1998). 이는 관계성의 세대전수에 있어서 남성이 보다 민감하며, 역기능적인 경우에 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관계의 세대전수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김순기, 유영주, 2001; 이현주, 김순옥, 1997), 배우자선택 전단계인 성인초기의 낭만적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Carter와 McGoldrick(1995)은 가족생활주기의 첫 단계로 결혼전(前)기의 과업, 즉 원가족과의 분화 및 친밀한 이성관계의 발달을 지적한만큼, 성인초기의 발달과업 성취여부는 미래의 가족의 청사진을 제공해준다고 하겠다. 국내 연구 중 미혼남녀의 친밀감이나 낭만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기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이성교제 연구가 주를 이룬다(박민자, 2000; 윤경자, 1996). 또한 정서적 관계의 전수의 메커니즘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이론과 다세대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2개월 이상의 고정된 교제(steady date)를 하고 있는 배우자선택 전(前)단계의 성인초기(22-33세) 미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1) 이들의 커플친밀감과 커플자율감 등, 낭만적 관계의 특

성을 살펴보고, 2) 원가족 요인과 불안, 군복무여부, 연령, 데이트 횟수 등의 요인들이 낭만적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며, 3) 원가족 요인(부모의 결혼친밀도, 원가족 분화)들이 개인의 만성불안을 매개로 하여 낭만적 관계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낭만적 관계

성인기는 아동기와 청년기에 비해 '생물학적 시간대'보다 '사회적 시간대'로 이동하며, 규범적 인생사건(결혼, 부모됨)의 시기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게 된다. Levinson(1978)은 인생주기를 네 개의 계절로 구분하는데, 두 번째 단계인 청년기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며 최고의 정력을 발휘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더 커진다고 하였다. 이 단계의 위기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나'를 '우리'라는 개념 속에 흡수해야하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정옥분, 2000).

청소년기의 오락적 성향의 낭만적 관계와는 달리 성인기 미혼 남성의 낭만적 관계는 발달과업상 결혼을 목적으로 한 친밀감 형성과 배우자 선택 행위로 대표되어진다. 성인초기의 낭만적 관계는 청년기 발달과업인 친밀감의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일이며, 인간관계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부모에게 향했던 정서적 지향을 이성에게 전환함으로써 자율적인 성인이 되도록 돕는다(이기숙 외, 2001; 함인희, 2001).

지난 1980-90년대를 통해 중매혼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연애혼은 증가해왔는데,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젊은이들이 보다 다양한 이성을 접촉할 기회가 증가하였고, 낭만적 사랑을 할수록 자율적인 배우자 선택인 자유혼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혼남녀 대상의 연구에서 애정과 사랑이 배우자선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분화된 성역할체계에서 친밀성을 둘러싼 갈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최연실(1999)은 미혼 및 기혼남녀를 심층면접한 연구에서 '여성화된 사랑'을 지적하며, 사랑이 지니는 도구적인 측면보다 감정적이며 표현적인 측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미혼남성이 직업적 성공을 위해 친밀성의 욕구를 부인하며 정서적 측면에 대해 표현하거나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 친밀한 관계에서의 적절한 독립성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분화된 성역할체계는 친밀감과 독립성의 균형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최연실(1999)은 양성적 모델을 제안하며, 독립성 모델에 대한 불균형적 초점을 비판하며, 상호의존성 모델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즉, 관계에 투신함으로써 자기개발이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경신과 동료들(1997)은 Sternberg의 친밀감, 헌신, 열정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 미혼남성들이 친밀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 사랑에 대한 개념에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특히 헌신의 영역에서는 여성보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남성이 여성보다 사랑의 지속성이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사랑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랑을 결혼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에 비해 남성은 관계나 사랑 그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허용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산업화 이후 나타난 여성적 사랑과 남성적 자기개발의 이상(각주: 사랑의 여성화라고도 함)과 부합하지 않는 현상으로서, 애정과 친밀감이 여성의 영역이라는 전통적인 인식과는 달리, 지난 10여년간 젊은 여성들은 일의 영역에 매진하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과거보다 사랑과 친밀감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이는 남성에게 있어서 사랑이 결혼의 동기로서 제도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개인적 관계망을 이용한 만남의 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연애혼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2년 이상 비교적

오랜 기간 연애하는 커플이 늘고 있다(함인희, 2001). 한 사람과 비교적 오랜 기간 배타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고정된 교제(steady date)' 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이성교제 초기의 여러사람과 사귀는 시기를 지난 후 자기에게 가장 매력있는 한 사람에게 점차 열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갖게되는 단계이다. 윤경자(199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데이트 기간과 관계의 헌신(commitment)의 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바 있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데이트 시작 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헌신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남성은 여성과 달리 헌신 정도와 관련 없이 혼전성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친밀감의 역동이 성별에 따라 다름을 시사하였다. 고정된 교제 단계에서는 관계가 안정되어 심리적 안정을 얻게되고 상대방을 좀 더 알게 되며 현실적인 요인들을 생각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최소흥미의 법칙이 적용되어 관계의 지속에 관심이 없는 쪽이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결국 갈등을 초래하여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이기숙 외, 2001).

2. 원가족 요인이 성인발달 및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성인행동과 발달에 미치는 근원가족의 영향에 관심을 갖음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생활만족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이 부각되고 있다(김현정, 김명자, 1999). Carter와 McGoldrick(1996)은 가족발달단계의 첫 단계로 결혼전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족생활주기는 결혼을 통한 2인체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소속되지 않은 젊은이' 단계에서 시작된다는 본 것은, 결혼전기의 발달과업인 자율감과 연결감의 유지가 이후의 가족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성인 애착이론에서는 유아기에 어떤 종류의 애착관계를 형성했는가에 따라 성인기의 사랑의 양상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본다(Shaver, Hazan, & Bradshaw, 1984). 예컨대 유아기에 안정된 애착관계를 가졌던 사람은

연인에게 자연스럽게 신체적, 심리적 욕구를 기대하며 자기노출에 따른 상대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나, 불안정한 유아기 애착을 형성했던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상대방부터 부정적 반응을 예측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를 불신하거나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만족스러운 이성관계를 경험하기 어렵다(이기숙 외, 2001).

가족체계론에 입각한 연구들 또한 개인 또는 가족 문제의 원인으로서는 역기능적 가족의 원가족 요인에 주목해왔지만, 최근에는 건강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원가족 건강성을 보고하며, 이들의 커플관계가 원가족건강과 관련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순기, 유영주, 2001; 이신숙, 2000; 최현미, 광민정, 1998)

최현미, 광민정(199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가족 건강성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원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신숙(2000)은 자아분화를 정서/인지 기능과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다섯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자아분화 영역들과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상자인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통합이 높으며 정서적 단절의 정도가 낮다고 하였다. 또한 기혼남성의 자아분화 수준은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김순기, 유영주(2001)가 25-39세 대상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기혼남자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고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치료 사례분석 연구에서도 자녀독립기의 대부분의 역기능적 증상들은 부모의 부부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정문자, 김연희, 2000).

이성교제 중인 커플관계와 관련된 원가족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결혼관계(결혼만족도, 결혼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순기, 유

영주, 2001; 박찬미, 서병숙, 1987; 유은희, 박성연, 1989). 결혼관계를 설명하는 원가족 요인으로 가장 많이 탐색된 변인은 부모의 결혼관계와 원가족건강성(자아분화나 가족분화)의 두 가지이다.

초기 연구들은 부모의 결혼의 질과 자녀의 결혼 관계간의 정적인 관련성을 보고하였는데, 박찬미, 서병숙(1987)은 부모의 결혼행복도와 자녀의 결혼만족도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최지희(1984)는 친가부모뿐만 아니라 시부모의 부부관계의 화합도가 아들부부의 부부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유은희(1989)는 부모의 결혼관계는 간접적으로 아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남순현(2000) 역시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은 기혼 딸의 부부관계의 친밀감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부모의 결혼관계와 별개로 원가족건강성 또한 커플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원가족건강성이라고 하면 부모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특정 하위체계의 기능보다 전체가족의 전반적인 기능과 가족내 친밀감과 자율성간의 균형, 의사소통과 경계의 명료성에 대한 가족규칙 등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현정, 김명자(1999)는 결혼초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원가족의 건강도가 부부의 결혼적응에 높은 설명력을 가진 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설명력이 높다고 하였다. 남순현(2000)은 미혼자녀의 이성관계에서의 친밀감이 부모와의 가족분화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Hovestadt와 동료들(1985)의 연구에서 원가족의 건강성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합리적인 행동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Benson과 그의 동료들(1993)은 원가족 관계가 청소년 후기(대학생)의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과 원가족의 건강성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는 불명확하나, 이 두 가지 요인이 각각 커플관계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다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부부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결

혼 전 단계의 낭만적 관계에서 이 두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탐색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3. 정서과정 전수와 불안

20세기동안 인간행동에 대한 대인관계적 요인들을 연구하는데 이론적, 방법론적 발전을 이룩해왔지만, 대인관계체계(가족, 커플 등)가 어떻게 위협에 대한 정보처리와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 연구관심이 강조된 것은 불과 몇 십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개인의 불안문제 및 대인문제가 가족 내의 불안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기질적인 요인과 학습을 통해 전수되어진다는 분명한 증거가 보고되고 있다(Dadds & Roth, 2001).

불안을 다루는 이론적 모델로는 사회학습이론과 애착이론, 그리고 가족전수모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족전수모델의 입장은 가족이 불안과 같은 정서에 대해 상호 정보교환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불안 경험은 다른 가족원의 그것과 독립적이지 않다고 본다. 가족전수모델의 대표적 이론가인 Bowen(1975)은 정서과정의 세대간 전수(generational transmission)는 융합과 분리의 힘이 여러 세대에서 나타나는 과정으로, 체계의 전수 메커니즘을 불안(anxiety)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불안은 '유기체의 실제 또는 가상의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거부와 유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되며, 이는 급성불안(acute anxiety)과 만성불안(chronic anxiety)으로 나뉜다(Kerr & Bowen, 1988). 급성불안은 당면한 실제의 위협/재난에 대해 생리적 반응(예: 맥박과 혈압상승)을 동반한 자율신경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적응기능인 반면, 만성불안은 일반적으로 가상의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종종 개인의 적응능력을 위축시킨다.

만성불안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나, 주요인은 관계체계의 친밀감과 자율감간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족내에서 학습된 반응이다. 불안은 환경을 통해 전수되는 "전염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핵가족내의 평균치를 아동기에

만성불안의 기저선으로 발달시키게 된다(Kerr & Bowen, 1988). 아동의 불안이 부모의 결혼갈등이나 원가족건강성의 지각,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경험적 증거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Dadds & Roth, 2001). Bowen(1975)에 의하면 미분화된 체계일수록 체계항상성이 깨진 후 만성불안 없이 항상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가족내 불안이 높아질수록 결속(친밀감)에 대한 압력이 높아져, 가족체계 내 융합과 편가르기(we-they faction)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Bowen(1975)은 정신분열 모자관계에서 '결합불안'과 '분리불안'이 번갈아 나타나는 모자공생관계를 관찰하였으며, Benson과 그의 동료들(1993)은 후기 청소년들의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원가족 영향의 메커니즘으로 불안이 원가족의 융해와 통제를 중재하는 매개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은희와 박성연(1989)이 부모의 결혼관계와 아들의 결혼관계는 '모자에착'의 매개를 통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에서, 부모의 결혼관계는 아들부부의 결혼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모자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애착과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남순현(2000)은 기혼자녀 250명을 대상으로 조부모, 부모, 성인자녀를 포함한 삼세대의 가족분화 전수과정을 본 연구에서 성인자녀의 불안이 가족분화 전수의 매개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낭만적 관계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원가족 요인과 불안은 미혼남성의 커플친밀감과 커플자율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불안은 원가족 요인이 낭만적 관계 간의 매개요인인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2개월 이상 한 여성과 이성교제를 지속하고 있는 22-33세의 성인초기 남성 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제기간을 2개월로 한정된 것은 일시적 교제과정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자 함이며, 이성교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김득성, 김예정, 1999; 이영숙, 1998)에서도 최소 2개월 이상의 교제기간을 갖은 대상만을 제한한 바 있다. 표집과정은 교회, 기관, 개인들을 통한 제보자모집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원가족요인과 낭만적 관계에 대한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수집된 158부 중 102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과 연구대상의 조건이 부합된 경우를 제외한 9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N=90)인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연령범위는 22-34세이며 평균연령은 26.3세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인	구분	성인남성(N=90)
연령	평균연령(표준편차)	26.27(2.65)
	연령범위 21-25세	45(50%)
	26-30세	40(44%)
종교	31-35세	5(6%)
	기독교	15(17%)
	불교	19(21%)
	천주교	7(8%)
	종교없음	43(48%)
학력	기타	6(7%)
	대학 재학	37(41%)
	대졸	38(42%)
	대학원 재학	8(9%)
직업	대학원 졸업	7(8%)
	학생(대학/대학원)	42(46.7%)
	영업직	6(7%)
	자영, 사업	4(4%)
	사무직	19(21%)
	관리직	1(1%)
	전문직	8(9%)
기타	10(11%)	

($sd=2.65$)였다. 직업은 대학(원)생이 4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무직(21.1%)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86.7%) 병역을 필하였다.

2.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원가족 변인(독립변인)

(1) 부모의 결혼친밀감: 부모가 결혼관계에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함께 대화나 여가를 공유하는지에 대한 지각.

부모의 결혼친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Bray와 그의 동료들(1984)이 개발한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의 하위척도인 10문항의 결혼친밀도(MI: Marital Intimacy)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부부관계의 친밀성, 평등성 등을 기술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결혼 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90으로 높게 나왔다.

(2) 원가족 분화: 근원가족에서 가족원간의 연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의 정도로, 원가족 기능의 건강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

자율성과 친밀성의 허용도를 측정하는 원가족분화 척도는 Hovestadt와 그의 동료들(1985)이 개발한 근원가족척도(FOS-55: Family-of-Origin Scale-55) 중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하위척도 16문항으로 5점 척도이다. 국내에서는 최현미(1996)가 변안하였으며 본 척도의 문화적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내 친밀성과 자율성의 허용도가 높음, 즉 가족분화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가족 분화척도의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2) 개인변인(매개변인)

(1) 만성불안: 성인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불안의 정도

남성 개인의 불안 수준을 알기 위해 김정택(1978)이 변안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연구된 Spielberger(1970)의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중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12개의 역점수화 문항이 포함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0으로 나타났다.

3) 낭만적 관계(종속변인)

(1) 커플 친밀감: 교제 중인 남녀의 정서적 가까움, 편함, 공유와 의사소통, 긍정적지지 등의 정서적 애착 측면.

친밀감 척도는 권석만(1997)이 번역한 Sternberg(1990)의 사랑의 삼각형이론 척도(The Triangle Theory of Love Scale) 중에서, 친밀감 영역의 1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관계에서의 정서적 가까움, 신뢰, 따뜻함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커플 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2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2) 커플 자율감: 교제 중인 파트너로와 친밀감을 유지함과 동시에 분리되고 뚜렷한 자아감을 갖고 있는 정도, 독립된 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

자율감 척도는 Hoffman(1984)의 심리적 분리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 국내판 중 '정서적 분리' 하위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5점척도로서 "남자친구의 반응에 너무 많이 신경쓴다," "남자친구는 때때로 나를 당황하게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도 계수는 .80이다.

4) 인구·구조적 변인(통제변인)

성인초기 남성의 낭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구조적 변인들로서, 연령, 군복무 경험, 데이팅 횟수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해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 1> 검증을 위해 빈도분석, 상관분석, 일원변량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2>에 대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에 대해 연령, 군복무 여부 등의 변수들을 통제한 후, 원가족 요인이 불안을 매개로 낭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낭만적 관계의 특성

본 조사의 응답자들의 데이트 특성을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응답자의 결혼고려여부, 교제동기, 교제기간, 주당 데이트횟수, 나이차 등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87.8%)가 6개월 이상 교제하고 있는 고정된 교제(steady date) 상태였으며, 현재 교제 중인 여성과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연인과의 나이차는 1-2살이 가장 많았고(40.0%), 3-4살(26.6%), 동갑(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제동기는 원래 알던 사이(41.1%), 소개(32.2%) 등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교제기간은 주당 평균 데이트 횟수는 2-3번(38.9%), 4-5번(22.2%)으로 나타나, 오랜 기간 교제

<표 2> 응답자의 데이트 특성에 따른 커플친밀감과 커플지용감

변 인	구 분	빈도(%)	Tukey/Duncan	
			친밀감평균(sd)	자용감평균(sd)
결혼고려	그렇다	78(86.7)	62.50(8.01)	20.47(4.94)
	아니다	3(3.3)	56.67(3.06)	20.67(3.06)
	교제 후 고려	9(10.0)	58.11(9.61)	22.89(7.10)
			F=1.829	F=.890
교제동기	친구소개	25(27.8)	60.32(9.78)	22.28(5.41)
	친, 인척 소개	4(4.4)	61.50(5.93)	20.50(3.27)
	사이버 채(미)팅	5(5.6)	53.2(5.50)a*	21.80(4.82)
	알던 사이	37(41.1)	64.41(6.69)a*	19.19(4.65)
	기타	19(21.1)	.	.
			F=2.313*	F=1.463
교제기간	2-6개월	11(12.2)	59.76(9.05)	20.08(6.81)
	6개월-1년	19(21.1)	63.93(7.78)	20.14(4.13)
	1-2년	24(26.7)	62.92(7.57)	19.46(4.21)
	2-3년	11(12.2)	59.20(7.58)	23.40(5.36)
	3년 이상	25(27.8)	61.78(8.76)	21.56(5.22)
			F=.807	F=1.368
(주당)평균 데이트횟수	1번 이하	20(22.2)	57.16(9.52)b*	21.58(6.58)
	2-3번	35(38.9)	62.65(7.28)	21.35(4.66)
	4-5번	20(22.2)	64.09(8.04)b*	20.46(5.04)
	6-7번	15(16.7)	62.83(6.35)	17.92(3.42)
			F=3.011*	F=1.608
나이차	동갑	22(22.4)	61.59(9.30)	20.59(6.57)
	1-2살	36(40.0)	63.19(7.40)	19.69(3.89)
	3-4살	24(26.6)	61.45(8.60)	22.04(5.34)
	5-6살	8(8.9)	57.88(6.56)	21.75(4.86)
			F=.983	F=1.126

*p<.05

를 하고 있음에도 빈번히 데이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데이트 특성들에 따른 커플친밀감과 커플자율감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제동기와 데이트 횟수에 따라 커플친밀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그 외의 변인들은 커플친밀감과 커플자율감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커플친밀감의 경우 <표 1>에서 나타나듯이, 결혼고려여부의 경우, 결혼을 고려한다는 응답자가 고려하지 않거나 교제 후 결정하겠다는 응답자보다 커플친밀감의 평균점수가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교제동기의 경우, 원래 알던 사이라는 응답자의 커플친밀감이 사이버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보고되었다 ($F=2.313, p<.05$). 교제기간의 경우 커플친밀감과 유의한 관련이 보이지 않았다. 반면 데이트 횟수에 따른 미혼남성의 커플친밀감은 일주일에 3-4회 만난다고 응답한 남성들의 커플친밀감이 가장 높았으며, 1회 이하로 만난다는 응답자의 친밀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3.011, p<.05$). 그러나 거의 매일 데이트를 하는(일주일에 6-7회 만남) 응답자의 친밀감은 오히려 3-4회 만나는 응답자보다 친밀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커플간의 나이차에 따른 집단 별 커플친밀감에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들의 커플친밀감과 커플자율감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낭만적 관계에 있어서 높은 친밀감과 낮은 자율감을 보였는데, 친밀감은 15-75점의 응답 가능범위에서 상위범위인 34-75점에 점수가 집중되었고, 논리적 중간점수인 45점에 비해 평균점수($M=61.87, sd=8.16$) 또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

다. 반면에 커플자율감은 10-50점의 응답가능범위에서 하위범위인 10-38점에 집중되어있으며, 논리적 중간점수인 30점에 비해 평균점수도($M=20.72, sd=5.13$)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정적 교제에 있어서 낭만적 관계는 여전히 애착과 의존성과 같은 표현적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커플간의 독립성이나 자기개발의 역량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커플친밀감과 커플자율감은 매우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r=-.65, p<.01$). 이는 성인초기 미혼남성이 낭만적 관계에서 친밀감과 자율감을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 결과는 최연실(1999)의 '양성화된 사랑'의 추세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결과일 수 있는데, 적어도 미혼남성은 '여성화된 사랑'에 여전히 고착되어 있는 것 같다.

2. 원가족 요인, 불안, 낭만적 관계의 관련성

1) 변인간의 상관관계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낭만적 관계에서의 친밀감과 자율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간의 상관관계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미혼남성의 연령은 친밀감 및 자율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연령은 커플친밀감과 부적 상관이 있으나($r=-.21, p<.05$), 커플자율감과는 정적 상관($r=.28,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친밀감은 낮으나 자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기대와는 달리 부모의 친밀감은 본인의 친밀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의 부부친밀감과 원가족 분화외도 유의한 관련

<표 3> 커플친밀감과 커플자율감의 응답형태

	응답가능범위	실제응답범위	논리적 중간점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커플친밀감	15 - 75	34 - 75	45	61.87	61.00	8.16
커플자율감	10 - 50	10 - 38	30	20.72	20.00	5.13
상관계수	$r=-.64^{**}$					

** $p<.01$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문화권에서 성인 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친밀도는 가족의 기능이나 본인의 낭만적 관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는 점이 추론되어진다.

미혼남성의 불안 역시 친밀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r=.24, p<.05$), 개인적 불안이 낮을수록 연인에 대한 친밀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원가족 분화의 경우 미혼남성의 불안($r=.29, p<.01$)과 친밀감($r=.31, p<.01$)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원가족 분화가 높을수록 개인의 불안 수준이 낮고 낭만적 관계에서의 친밀감은 높게 나타난다.

부모의 부부친밀도와 원가족 건강성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두 변인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족의 기능이나 건강성의 가장 중요한 준거로 부부관계의 질을 꼽는 외국의 관점과 달리, 우리 문화권에서는 부부친밀도가 가족건강성의 준거로 적절하지 못함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2) 낭만적 관계의 친밀감과 자율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낭만적 관계에서의 커플친밀감과 커플자율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감에 대해서는 회귀모델의 설명력이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낭만적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을 유지하는 능력은 원가족요인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 문화권에서 낭만적 관계의 자율감이 중요시되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편 커플 친밀감은 원가족 분화를 비롯한 6개 독립변인에 의해 변량의 24%가 설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F=4.32, p<.01$). 원가족 분화($b=.19, p<.10$)와 불안($b=.18, p<.10$)은 친밀감을 설명하는데 약간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트 횟수($b=.21, p<.05$), 연령($b=-.22, p<.05$), 군복무여부($b=.21, p<.05$) 또한 설명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원가족요인과 불안, 그 외에 관련 변인들이 낭만적 관계의 자율감보다 친밀감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커플 친밀감의 역동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연령과 군복무여부 변수를 통제하고 원가족요인과 불안의 직, 간접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제기되어진다.

3. 낭만적 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원가족 요인과 불안의 경로분석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낭만적 관계에서 자율감 모델의 설명력에 비해 친밀감 모델이 설명력이 좋은 모델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연령과 군복무 여부의 변인을 통제한 후, 원가족 요인이 불안을 매개로 커플 친밀감에 미치는 효과를 좀 더 자세히 보기위해 전체연령의 중위수인 25세를 기준으로(22-25세가 전체의 50%임) 연령집단을 상하로 나누어 따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86.7%)가 병역필이었기 때문에 미필의 표집크기($N=12$)가 너무 작아 이 집단을 따로 분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므로, 병역의 의무를 완수한 남성($N=78$)만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친밀감에 있어서 원가족 요인이 불안을 매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 첫단계에서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원가족 분화와 부모의 부부친밀감을 예언요인으로 회귀식에 입력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커플 친밀감을 종속변수로 원가족분화와 부모의 부부친밀도, 불안을 입력하였다.

병역을 필한 남성을 중위수인 25세를 기준으로 연령상집단(26-34세)과 연령하집단(22-25세)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하집단은 F값이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연령상집단만이 설명력있는 모델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5>를 보면 연령이 26세 이상인 병역을 필한 남성의 불안은 원가족분화와 부모의 결혼친밀도에 의해 20%의 변량이 설명되고 있다($F=3.792, p<.05$). 특히 원가족분화는 남성의 불안을 예언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b=.40, p<.05$). 커플 친밀감의

<표 4> 주요변수들간의 상관분석

	부모친밀감	가족분화	연령	데이트횟수	불안	커플친밀감	커플자율감
부모친밀감	1.00						
가족분화	.16	1.00					
연령	.06	-.07	1.00				
데이트횟수	.22*	.08	-.14	1.00			
불안	.09	.28**	.03	-.14	1.00		
커플친밀감	.14	.31**	-.21*	.03	.24*	1.00	
커플자율감	-.12	-.18	.28**	-.21*	-.07	-.65***	1.00
평균	33.10	57.73	26.27	2.30	58.26	61.87	20.72
표준편차	6.32	8.71	2.65	.95	7.61	8.16	5.13

* p<.05 **p<.01 ***p<.001

<표 5> 커플친밀감과 커플자율감에 대한 원가족 요인과 불안의 중다회귀분석

	커플친밀감		커플자율감	
	B	β	B	β
원가족 분화	.18	.19+	2.680E-02	.04
부모 결혼친밀도	9.135E-04	.04	-.11	-.14
불안	.19	.18+	-6.3E-02	-.09
데이트 횟수	1.77	.21*	-1.02	-.17
연령	.31	-.22*	.50	.24+
군복무 여부	4.93	.21*	-2.44	-.17
상수	49.190		18.21	
R ²	.24		.14	
F	4.32**		1.74	

+p<.10 *p<.05 **p<.01

경우, 원가족분화와 부모의 부부친밀도, 불안의 요인들이 30%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으며(F=4.040, p<.05), 그 중 불안만이 커플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이었다(b=.42, p<.05). 즉, 병역 필한 26세 이상의 미혼남성의 경우, 원가족분화는 그들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은 다시 커플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원가족분화는 커플 친밀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부부친밀도는 커플친밀감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경로분석에 대한 직,간접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원가족분화는 친밀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지만, 원가족분화는 불안을 통하여 커플친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안을 통한 원가족 분화의 간접효과는 .168이며 이 간접효과는 전체효과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볼 때 원가족 분화는 불안을 통하여 커플친밀감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안은 가족내 정서과정의 매개역할을 한다는 Bowen(1979)의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인다.(해석)

반면 부모의 결혼친밀도가 불안을 통해 커플친밀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7.3%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불안을 통한 간접효과는 적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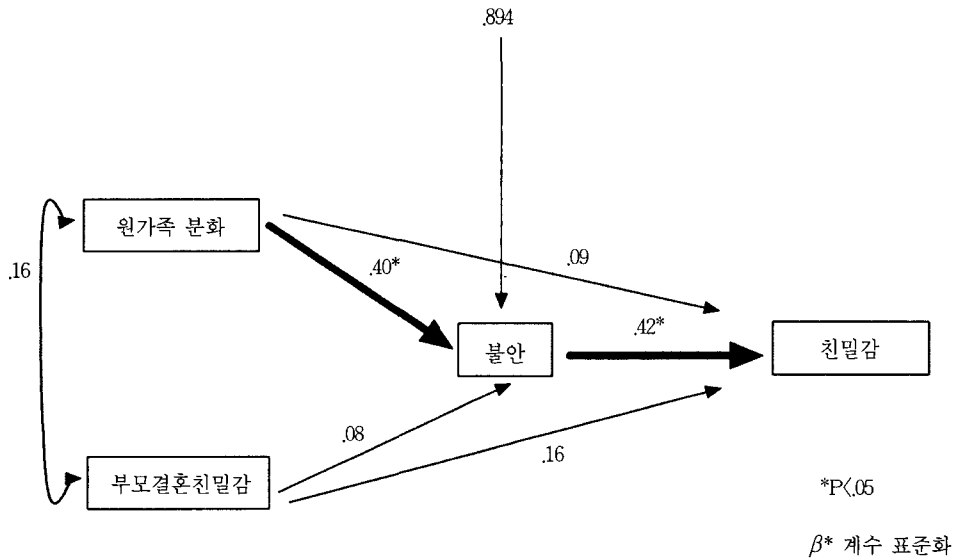
<표 6> 병역 필 남성의 연령에 따른 커플친밀감에 대한 경로분석

	연령상집단(26-34세)				연령하집단(22-25세)			
	불안		커플친밀감		불안		커플친밀감	
	B	β	B	β	B	β	B	β
원가족 분화	.30	.40*	7.36E-02	.09	2.74E-02	.02	.30	.33+
부모결혼친밀도	9.22E-02	.08	.19	.16	6.74E-02	.06	.13	.13
불안	.46	.42*	-6.0E-02	-.07				
상수	37.55	22.70	55.79	42.66				
R ²	.20	.30	.01	.15				
F	3.79*	4.04*	.06	1.41				

* p<.05

<표 7> 커플친밀감에 대한 원가족 분화와 불안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연령 집단)

	불안			친밀감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원가족분화	.40	-	.40	.09	.168(65%)	.258
부모 결혼친밀도	.08	-	.08	.16	.034(17.3%)	.194
불안	-	-	-	.42	-	.42



<그림 1> 커플친밀감에 대한 원가족요인과 불안의 경로모델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원가족 분화와 친밀감 형성을 발달과업으로 하는 결혼전(前)단계의 성인초기 미혼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고정된 교제의 낭만적 관계에서의 데이트 특성을 살펴보고, 부모의 결혼친밀도와 원가족분화가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으며, 원가족 요인이 개인의 불안을 매개로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직, 간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데이트 특성 중 교제동기와 데이트 횟수가 커플친밀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높은 수준의 커플친밀감과 낮은 수준의 커플자율감을 보고하였으며 커플친밀감과 커플자율감은 상당히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우리 문화권의 낭만적 관계에서 친밀감과 자율감은 양립되기 어려운, 상반적 개념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미혼남성의 원가족분화가 높을수록, 불안이 낮을수록 커플친밀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데이트 횟수가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병역을 필한 응답자일수록 커플친밀감을 높게 보고하였다. 반면에 커플자율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데이트 횟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원가족 요인이나 불안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병역과 연령을 통제한 채 원가족요인이 불안을 매개로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모형을 검증한 결과, 26세 이상의 집단에서 원가족 분화는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은 다시 커플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가족 분화는 커플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보다 불안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부모의 결혼친밀도는 커플친밀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우선 제보자모집의 방식으로 표집을 한 점인데, 이는 2개월 이상 교제를 하고 있는 성인초기의 남성을 무작위 또는 체계적 확률 표집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을 제외하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점이 제한적이나, 이미 선행연구에서 낭만적 관계의 남녀차를 탐색하였기 때문에(김경신 외, 1997; 박민자, 2000; 윤경자, 1996), 남성에게 미치는 원가족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기존연구의 결론에 입각해 남성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분석을 한 것이다. 셋째, 중다회귀분석에서 데이트 횟수가 커플친밀감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경로분석에서 제외된 것은 인과모형에서 이론적으로 고려한 변인이 아니기 때문이며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데이트 횟수에 따른 낭만적 관계의 특성을 살펴본 것이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기대에 부응한 결과 및 기대와 다르게 나타난 점들에 대해서 간략히 논하겠다. 첫째, 연구자의 기대와 같이, 전체적으로 커플친밀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커플자율감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성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친밀감이 자기개발이나 독립심보다 비중이 큰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양성화된 사랑'의 추세가 진행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최연실, 1999), 성인초기 미혼남성들은 여전히 '여성화된 사랑'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밀감과 자율감 간의 높은 부적 상관관계는 두 구성개념이 상반된 개념으로 인지되고 있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두 영역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성취할수록 기능적인 관계로 보는 외국의 관점과 다르다. 친밀성과 자율성에 대한 이와 같은 결과는 커플관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가족관계(부모-자녀관계 등)를 다룬 한국가족 대상의 연구들에서도 나타나는데(전영주, 1998; Chun & McDermid, 1997), 친밀감이 자율감보다 잘 정의되고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점은 우리 문화권의 인간관계에서 자율감의 개념이 애매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 연구자의 기대와 달리 부모의 결혼친밀도와 원가족 분화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문헌에서 부부관계는 가족기능성의 핵심적 하위체계로 알려져 있으나, 적어도 우리나라의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경우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의미있지 않게 보인다. 또한 부모의 결혼친밀도와 다음세대의 커플친밀도간에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외국의 연구결과(Rossi & Rossi, 1990)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성인발달이나 커플관계를 논할 때 연령과 군복무경험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은 커플친밀감과 커플자율감과 모두 관련이 있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커플친밀감은 낮았고 커플자율감은 높았다. 이는 성인초기 남성의 발달적 특성상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성과의 애착보다 자기개발과 직업적 성취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향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군복무경험은 남성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군복무 경험이 자율감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군복무 경험자일수록 원가족요인에 의해 현재 커플 친밀감에 영향을 받는 경로가 뚜렷이 나타났다. 즉, 군복무 경험은 성인남성으로 하여금 원가족을 돌아보고 그 영향을 오히려 내면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듯하다.

넷째, 원가족분화와 불안은 둘 다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커플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원가족분화가 불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분석 결과는 친밀한 관계의 다세대 전이의 메커니즘을 일부 밝혀주었다고 보겠다. 가족내 친밀성과 자율성의 균형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만성불안이 낮으며, 이는 개인의 낭만적 관계의 친밀감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Bowen(1979, 1988)이 주장한 바와 같이, 불안은 주로 아동기에 경험한 가족건강성과 양육방식을 통해 습득된 후 미래의 친밀한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본 연구결과는 불안이 정서과정의 다세대 전수에서의 매개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커플친밀감은 부모의 결혼친밀도보다 원가족분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부부관계의 질이 다음세대로 전수되기보다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한 가족의 건강성이 미래의 커플관계의 질에 대한 보다 설명력있는 예언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족관계의 연구 및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치료에 제공하는 함의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한국가족관계의 연구에서 친밀감이나 애착, 결속에 관한 관심은 많았으나, 자율감이나 독립성, 분화 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개인이나 가족의 최적의 기능을 위해서 친밀감과 자율감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이론적 관점은 달리, 경험적 연구들은 우리 문화권에서 자율감의 개념이 애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서구의 독립성과 자율감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국내연구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다원화와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한국가족관계의 연구에서도 자율성과 분화에 대한 개념적 정립과 함께 적절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

한편, 남성을 위한 결혼전 예비부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원가족 탐색에 대한 내용은 물론, 군복무 경험이 가족과 결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탐색해보도록 하며, 개인의 만성불안을 측정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포함시킴으로서 커플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부치료나 이혼치료에서 결혼전단계의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임상에서 가족문제를 다룰 때 결혼전단계에서 내담자의 결혼에 대한 기대나 원가족 분화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 단계가 가족생활주기의 첫 단계로서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가족치료 분야의 추세는 사회구성주의의 영향으로 문제력보다 내담자의 자원과 강점에 비중을 두는 편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전단계의 사정과 불안에 대한 탐색은 여전히 중요한 치료적 단서임을 보여준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 원가족 요인은 현재 커플관계에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으므로, 치료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신, 김오남, 윤상희(1997).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대한가정학회지*, 35(3), 15-29.
- 김순기, 이영주(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

- 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 (1), 43-64.
- 김현정, 김명자(1999). 근원가족건강도, 자아존중감, 결혼적응의 관계 -청주시 결혼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 (2), 39-60.
- 남순현(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성인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민자(2000). 한국대학생들의 데이트 과정에 나타난 남녀의 차이. *가족과 문화*, 12(1), 53-66.
- 박찬미, 서병숙(1987).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 정옥분(2000). 성인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유은희, 박성연(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 관계에 따른 아들부부의 결혼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 윤경자(1996). 데이트관계에서 헌신의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34(4), 393-402.
- 이기숙 외(2001). 결혼의 기술. 서울: 신정.
- 이현주, 김순옥(1997).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89-114.
- 전영주(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자녀의 우울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 정문자, 김연희(2000). 가족생활주기별 내담자의 문제와 가족치료기법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1), 3-29.
- 최연실(1999). 사랑에서의 사회적 성과 자기개발에 대한 연구: 미혼 및 기혼 남녀의 면접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55-74.
- 최지희(1984). 결혼전후환경이 부부관계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미, 광민정.(1998). 대학생의 원가족 인식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논문집*, 11(1), 89-100.
- 함인희(2001). 배우자선택 양식의 변화: 친밀성의 혁명? *가족과 문화*, 13(2), 3-28.
- Chun, Y. J. & McDermid, S. (1997). Perceptions of family differentiation, individuation, and self-esteem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451-462.
- Dadds, M. R. & Roth, H. H. (2001). *Family proces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problems.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NY: Oxford Univ. Press, Inc.
- Hovestadt, J. A., Anderson, T. W., Piercy, P. F., Cochran, W. s. & Fine, M. (1985). A family of 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Y: W. W. Norton & Company.
- Rossi, A. S. &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NY: Aldine de Gruyter.

(2002년 7월 30일 접수, 2002년 11월 13일 채택)